

드라마프로덕션 과제
〈손(가제)〉

S#1. 현규의 집 (N, I)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화실 안을 채운다.
붓, 종이, 물감 등 여러 미술도구가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다.
컨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한 남자, 현규의 모습이 드러난다.

현규, 그림을 그리던 붓을 컨버스에서 떼어낸다.
붓을 왼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다.
주변 바닥에는 평가서라 쓰여있는 서류들이 나뒹굴고 있고,
핸드폰은 계속 진동하고 있다.

현규, 불안한 시선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그림을 여기저기 바라보는데 시계 소리가 점점 커져간다.
시계 소리가 커져갈수록 현규의 숨소리도 거칠어져간다.
그러다 갑자기,

현규 (고통스러운 듯) 아아악!

현규,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비명을 내지른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쓸어버린다.

Cut to

현규, 칼을 든 채 자신의 왼손을 바라보고 있다.
그대로 칼을 손쪽으로 내려친다.
블랙아웃.

S#2. 현규의 집 (D, I)

책상에는 올려져 있는 약봉지.
현규, 멍하니 앉아있다.

의사 (V.O.) 환자 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었고...

현규, 얼굴을 찡그린다.

의사 (V.O.)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현규, 눈을 지그시 감는다.
사라지는 의사의 목소리.

S#3. 화실 (D, I)

현규, 눈을 뜨자 화실이다.
눈 앞에는 빈 캔버스가 있다.
현규, 그림을 그리려 자신의 미술도구통에 왼팔을 내미는데,
통이 떨어지면서 들어있던 붓들이 땅으로 떨어진다.
현규, 사라진 자신의 왼손을 바라보고는 표정이 굳는다.

현규 (흐느끼며) 아아, 아아아...

현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비명인지 흐느낌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뿜는다.

Cut to

현규, 소주를 병나발로 들이킨다.
다 마신 소주병을 바닥에 놓고 비닐을 뒤지는데, 남은 술이 없다.

S#4. 길거리 (D, O)

현규, 술기운 탓에 비틀거리며 걷는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타와 노래 소리.
현규, 소리의 방향으로 시선을 향하니...
한 연주가가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다.
주변에 관객 하나 없지만 곳곳히 노래를 이어간다.

현규, 멍하니 연주가를 바라보다 시선이 기타를 치는 손으로 향한다.
현규, 어느새 연주가 앞으로 가 그의 손을 붙잡는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내리쳤던 칼로 그의 손을 내려친다.
연주가, 손이 잘려나간 자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워 하며 무릎 꿇는다.

연주가 (매우 고통스러운 듯) 아아아아악...!

연주가의 비명.

현규, 고통스러워 하는 연주가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다시 연주가 쪽으로 시선이 향하면, 멀쩡히 노래를 하고 있다.
현규, 상상이 끝나자 표정이 그대로 굳는다.
자신의 왼쪽 소매를 숨기며,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난다,

S#5. 편의점 앞 (D, O)

현규, 비닐봉투에 술을 가득 담은 채 편의점을 나선다.
잘그랑 잘그랑... 술병 부딪히는 소리만 나는 침묵. 그러다...

성훈 현규형!

현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성훈 현규형!

현규, 뒤돌자 성훈이 앞에 와있다.
현규, 오른팔을 등 뒤로 감춘다.
성훈, 현규의 얼굴을 보고는 미소를 짓는다.

성훈 맞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현규 어... 안녕.
성훈 졸작 준비하신다면서요. 잘 돼가요?
현규 어. 별로...
성훈 에이... 또 엄살.
현규 ...
성훈 기대할게요. 나중에 밥 한 번 먹어요!

성훈, 그대로 떠나버린다.
현규, 멍하니 성훈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S#6. 공원 (D, O)

현규, 두리번거리다 벤치를 발견하고 앉는다.
비닐봉지에서 소주를 한 병 꺼내든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소주를 따서 들이킨다.

현규, 공원을 둘러본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웃고 있다.
가족과 함께 온 이들, 연인과 함께 온 이들, 애완동물과 함께 온 이들...

현규, 눈을 지그시 감는다.
햇빛이 현규의 얼굴을 비춘다.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짐을 느낀다.
현규, 눈을 뜨면 그 앞엔..
다름아닌 현규 자신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
현규, 놀라서 눈을 다시 감았다 뜬다.
다시 본 노숙자의 얼굴은 현규의 얼굴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다.

노숙자 나와요.
현규 네...?
노숙자 내 자리에요. 나와요.
현규 아... 죄송합니다.

현규, 술을 챙겨 벤치를 도망치듯 떠난다.
뒤를 돌아 벤치에 누워있는 노숙자를 바라본다.
노숙자, 소주를 병나발로 들고 있다.
그러더니 어딘가를 지그시 바라본다.
현규, 그런 노숙자를 지그시 바라본다.

S#7. 화실 (N, I)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화실.
현규, 들어와 불을 켜다.

화실 한구석엔 빈 소주병들이 가득있다.
현규, 의자에 앉아 멍하니 캔버스를 바라본다.
그런데 갑자기, 캔버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현규, 당황한 기색 없이 계속 캔버스를 바라본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바닥의 붓도, 예전에 그린 그림들도, 소주병들도..
화실 안의 모든 것이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현규, 웃음소리 속에서 약봉지를 뒤진다.
약 하나를 꺼내 입에 털어넣고 삼킨다.
눈을 지그시 감자, 웃음소리들이 사라진다.
다시 아무런 소리가 나지않는 화실.

현규, 뒤척이다 잠에 든다.

S#8. 어두운 복도(꿈) (N, I)

사방이 어두운 복도.
현규,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빛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문을 발견한다.

현규, 문 앞으로 다가가 선다.
문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현규, 문을 연다.

S#9. 화실(꿈) (D, I)

문 안으로 보이는 것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현규 자신이다.
현규, 또 다른 자신에게 조금씩 다가간다.

그때, 누군가 현규를 제치고 먼저 꿈 속의 현규에게 다가간다.
그러더니 꿈 속의 현규의 캔버스에 붓으로 그림에 그려넣는다.
부모, 친구, 후배, 교수 등 사람들이 한명씩 다가와 캔버스에 저마다 그림을 추가한다.
꿈 속의 현규의 원래 그림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S#10. 전시회(꿈) (D, I)

전시회에 완성된 현규의 그림이 걸려있다.
그림을 추가했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만족스러워 한다.
현규,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어느새 사슬에 묶여있다.
눈에 보이는 칼을 집어 사슬을 끊고 달려간다.

현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을 비집고 그림 앞으로 다가간다.
그림 앞에는 꿈 속의 현규가 서있다.

꿈 속의 현규, 뒤를 돌고 현규와 눈이 마주친다.
두 현규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본다.

현규, 엉망이 된 그림으로 시선이 향한다.
달려가 그림을 떼어내고, 왼쪽 소매를 걷는다.
그리고는 왼손으로 붓을 잡고, 흰 물감을 덧칠하기 시작한다.
꿈 속의 현규의 그림은 다시 흰 바탕뿐인 캔버스가 된다.

현규, 주변을 둘러본다.
어느새 꿈 속의 현규와 주변 사람들이 사라져있다.
이 공간에 남아있는 것은 현규와 캔버스뿐이다.

S#11. 화실 (D, I)

현규, 눈을 번쩍 뜨며 꿈에서 깨어난다.
머리를 붙잡으며 일어나 주변을 둘러본다.
여기저기 소주병이 널부러져 있다.
그러다 빈 캔버스가 시선에 들어온다.
현규, 멍하니 빈 캔버스를 바라본다.

END